국토교통부		보	도 자 료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학신
		배포일시	2019. 11. 29.(금)	보다나은 정부
담당 부서	물류산업과	담 당 자	· 과장 김완국, 사무관 송태호, 주무관 송영란 ·☎ (044) 201-4023, 4025	
보도일시			12월 2일(월) 조간부터 보도 · 방송·인터넷은 12.1.(일) 1	

올해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

"우체국(J대한통운(일반),용마로지스성화기업(기업)" 최우수 전체 16개 회사 택배서비스 평균 B+ 등급…전반적으로 우수
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실시한 「2019년도 택배서비스 평가」 결과를 발표하였다.
- □ 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들이 이용하는 생활밀착산업인 택배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업체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'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.
 - ⊙ 평가 대상은 일반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군(개인→개인, 홈·온라인쇼핑→개인)과 기업 간 소화물 이동에 주로 이용하는 기업택배군(기업→기업)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.
 -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(300명)을 구성하여 모든 택배사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.
- □ 평가 결과, 일반택배 분야에서는 '우체국택배'가 A+등급, CJ대한통운'이 A등급,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'용마로지스'와 '성화기업택배'가 A등급을 받아 서비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- 일반택배 분야의 우체국은 전년도에 이어 A+등급을 받아 최우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CJ대한통운은 전년도 B++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.
- 기업택배 분야는 성화기업과 용마로지스가 전년도와 같이 A등급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< 2019년 택배서비스 평가 결3	4 >
---------------------	-----

일 반택 배				기업택배	
	C2C B2C		기합텍배		
A+		우체국	A+	_	
Α	우체국, CJ대한	CJ대한	Α	성화, 용마	
B++	로젠, 롯데, 한진	롯데, 한진	B++	경동, 고려, 대신, 동진, 합동	
B+	일양, 합동	로젠	B+	일양, 택배업협동조합	
В	경동, 대신, 천일	경동, 대신, 일양, 합동	В	건영	
C++	_	천일	C++	천일	
C+	_	_	C+	-	

- * 동일 등급 내 업체명 가나다순
- ** C2C는 개인과 개인 간 배송, B2C는 인터넷쇼핑몰·홈쇼핑 업체와 개인 간 배송
 - 16개 택배사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(평균 B+등급)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, 개인거래(C2C) 및 전자상거래 (B2C), 기업거래(B2B) 모두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향상되었다.
 - * C2C: ('18년) 85.2점→('19년) 86.7점, B2C: ('18년) 83.7점→('19년) 85.0점, B2B: ('18년) 85.8점 → ('19년) 86.3점
 - 항목별로는 집화 및 배송의 신속성(96.3점) 및 화물사고율이 낮아 사고율(98.4점) 부문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, 피해처리 기간, 콜 센터 고객의 소리(VOC) 응대수준 등의 항목이 포함된 고객 대응성 (75.0점) 부문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□ 아울러, 전반적으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영역도 분석되었다.
 - 일반택배에서 택배기사 처우 수준은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이나

아직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고객콜센터 연결 대기 시간의 단축 및 배송할 때 고객부재시 물품보관 장소에 대한 안내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- * 택배기사 만족도: 74.6점, 콜센터 대기시간 이용 만족도: 71.5점, 배송할 때 고객부재시 물품보관장소 안내 만족도: 70.7점
- □ 또한, 올해 처음 실시한 도심지 및 난배송지역의 서비스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결과, 물품수령 시의 불만사항으로 도심지는 택배기사 불친절, 난배송지는 고객이 원하는 수령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의 배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* 물품수령 시 불만사항: '도심지' 택배기사 불친절 57.8%, '난배송지' 다른 곳 배송 64.3%
- □ 국토교통부는 택배업체의 택배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, 택배사별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리포트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소비자 권리보호, 택배기사 처우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송태호 사무관(☎ 044-201-40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택배서비스 평가 항목 및 등급

□ 평가 대상

○ **전국적인 택배서비스**를 제공하는 **16개 업체**를 대상으로 서비스 형 태의 특성에 따라 **2개 그룹**(일반택배, 기업택배)군으로 구분

평가 대상	일 반택 배 군 (C2C, B2C)	우체국택배, CJ대한통운, 로젠, 롯데글로벌로지스, 한진 경동물류, 대신정기화물자동차, 일양로지스, 천일택배, 합동물류
구 분	기업택배군 (B2B)	건영화물, 고려택배, 동진특송, 성화기업택배, 용미로지스, 한국택배업협동조합 경동물류, 대신정기화물자동차, 일양로지스, 천일택배, 합동물류

□ 평가 항목

○ **일반택배** 9개 영역, 45개 항목

평가영역		평가항목	평가기준		
	1-1. 신뢰성	7개 항목	- 전문평가단의 택배사간 서비스(B2C, C2C) 비교경험을 통한 9점척도 질적 수준 평가		
	1-2. 친절성	9개 항목			
	1-3. 적극지원성	9개 항목			
	1-4. 접근용이성	5개 항목			
4 -1-1	1-5. 물리적환경 6개 항목				
1. 과정 품질	1-6. 대응성	VOC 응대 수준	- 콜센터 인입콜 응대율 - 콜센터 외 경로로 접수되는 VOC 24시간 내 회신율 - 전문평가단 콜센터 C2C 9개 항목, B2C 8개 항목 만족도		
		피해 처리 기간	- 피해접수일로부터 배상액지급일까지 평균 소요일		
		기사 처우 수준	- 기사 대상 9점첨도 만족도 평가		
		직영 차량 비율	- 1.5톤 미만 전체 배송용 차량 대비 직영차량 보유 대수		
		배송률	- 집화량 대비 익일 내 배송 건수		
2. 결과	2-1. 신속성	집화율	- 접수건수 대비 당일·익일 내 집화·반품 건수		
품질	2-2. 안전성	화물 사고율	- 집화량 대비 화물 사고 건수		
		피해 접수율	- 집화량 대비 소비자원·국민신문고 피해접수 건수 및 합의율		
(기점)	2-3. 차별성	차별화 서비스	- 무인택배함 서비스 제공 - 배송알림서비스 제공 - 타사와 차별화된 맞춤형 배송 서비스 제공		

○ **기업택배** 9개 영역, 36개 항목

평가영역		평가항목	평가기 준		
1-1. 신뢰성		6개 항목			
	1-2. 친절성	4개 항목			
	1-3. 적극지원성	8개 항목	- 고객사 대상 9점척도 질적 수준 평가		
	1-4. 접근용이성	4개 항목			
4 기자	1-5. 물리적환경	6개 항목			
1. 과정 품질	1-6. 대응성	고객정보시스템 구축 수준	- 고객사 지원 정보시스템 제공 기능 수준		
		피해 처리 기간	- 피해접수일로부터 배상액지급일까지 평균 소요일		
		경영시스템 구축 수준	- 물류 관련 취득 인증 현황		
		직영 차량 비율	- 1.5톤 미만 전체 배송용 차량 대비 직영차량 보유 대수		
2. 결과 품질	2-1. 신속성	배송률	- 집화량 대비 익일 내 배송 건수		
		집화율	- 접수건수 대비 당일·익일 내 집화 건수		
白己	2-2. 안전성	화물 사고율	- 집화량 대비 화물 사고 건수		
(기점)	2-3. 차별성	차별화 서비스	- 타사와 차별화된 고객사 맞춤형 배송 서비스		

□ 평가 등급

등급	점수 구간	상태
A++	96.66점 이상 ~	
A +	93.33점 이상 ~ 96.66점 미만	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매우 우수한 상태
Α	90.00점 이상 ~ 93.33점 미만	
B++	86.66점 이상 [~] 90.00점 미만	
B+	83.33점 이상 [~] 86.66점 미만	서비스에 대한 경미한 개선이 요구되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상태
В	80.00점 이상 [~] 83.33점 미만	
C++	76.66점 이상 [~] 80.00점 미만	
C+	73.33점 이상 [~] 76.66점 미만	서비스에 대한 부분적 개선이 요구되는 보통의 상태
С	70.00점 이상 [~] 73.33점 미만	
D++	66.66점 이상 [~] 70.00점 미만	
D+	63.33점 이상 ~ 66.66점 미만	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미흡 상태
D	60.00점 이상 [~] 63.33점 미만	
E++	56.66점 이상 [~] 60.00점 미만	
E+	53.33점 이상 [~] 56.66점 미만	서비스가 불량하여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태
Е	50.00점 이상 ~ 53.33점 미만	